

“사울의 실패 원인”

사무엘상 31:1-6

성경의 구약에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고,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으로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부터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밋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무려 40년간 왕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사울이 실패한 원인 가운데, 첫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겸손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왕과 달리 무역을 잘하거나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인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말렉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 사무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따로, 순종 따로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는 하는데, 막상 결정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두번째 원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죽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모든 뜻과 의지를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폐위를 선언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삼상 15:23)

결국 예배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세번째 이유는, ‘기도’입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대상 10:13-14)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 장에는 사울이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 85 명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 아무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도사람 도역이 나서 제사장 85 명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울은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그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저 재밌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존경이 되고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가까이 둔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영적 투자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삼상 31:6)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요나단까지 사울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신앙의 인물이었고,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 역시 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시대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마치 탁월한 침례요한도,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 앞에서 구시대의 사람이 되어 버린 것과 같이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그 어떤 환란과 시험 앞에서 모든 고백의 마지막이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 원인에 대해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이유들은 모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고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사울은 이 세가지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사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 실패하지 않고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사울의 실패한 세가지 원인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공감이 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가지 원인들 중, 내가 가장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거나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